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April 26, 2026, 10:30 a.m.

부활절 네번째 주일 (Year A)

Fourth Sunday of Easter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25 면류관 벗어나서 Crown Him With Many Crowns

H36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C1017 내 평생 사는 동안 I Will Sing unto the Lord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요한복음 John 10:1-10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가짜 목사 The False Teachers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620 여기에 모인 우리 We Will Keep Our Faith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 수요일 8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2026년 5월 10일 아래의 안건으로 임시 신도사무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한 부서 창설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사도행전 ACTS 2:42-47

-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시편 PSALM 23

-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서신서 성경 공부

본문 함께 살펴보기

본문이 기록될 당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종(사환)'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일부로 시작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회적 신분을 넘어 억울한 고난을 마주한 모든 성도를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베드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임을 강조하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일깨웁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그람모스(hypogrammos)'는 어린아이가 글씨를 배울 때 밑에 깔고 따라 쓰는 연습장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그대로 덧쓰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삶의 표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사야 53 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나,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구원론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 같던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부당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 (Unjust Suffering and God's Grace)

베드로는 부당한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grace)'고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억울함은 분노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내하는 고난은 영적인 성숙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 침묵과 맡김 (Christ's Example: Silence and Entrusting)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무기력한 굴복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에서 나오는 영적 절제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 (The Cross of Healing and Restoration)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제 길로 가던 길 잃은 양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는 작은 불이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억울한 고난'을 참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도전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나는 즉각적인 반격과 방어를 선택하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스도의 인내를 묵상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지만, 베드로는 고난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일깨웁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흔적들이 단순히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온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을 신뢰하는지 자문해 봅시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안전합니다. 나의 삶이 흔들리고 억울함으로 마음이 상할 때,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길을 개척하려고 방황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살면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3.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상처에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Day 1 (월/Mon): 베드로전서 2:19-25 말씀을 3 번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며 묵상하기.

Day 2 (화/Tue): 최근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억울하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를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기.

Day 3 (수/Wed): '침묵의 훈련'. 오늘 하루 비난이나 불평을 들을 때 즉각 반박하지 않고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침묵해 보기.

Day 4 (목/Thu): 그리스도의 상처로 치유받은 영역을 기록해 보고, 감사의 고백을 담은 짧은 일기 쓰기.

Day 5 (금/Fri): 고난 중에 있는 이웃 한 명에게 연락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작은 선의 베풀기.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24, KRV)

사랑의 주님, 고난의 길을 몸소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삶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기보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흔적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신실한 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요한복음 JOHN 10:1-10

-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 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